

지역 소식통

완주군의회, 1차정례회 폐회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16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 등 결산안 2건, '완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수소융합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중운 의원이 '완주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결산 지적사항의 해결방안으로 철저한 예산관리와 잉여금 발생 최소화, 가용재원을 확보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남용 의원의 10명의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농업인 고령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 소득 감소문제해결을 위해 소득 안정화를 촉구하는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결의문을 발송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공덕면, 주민자치위원회 고구마 심기 실시

김제시 공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환)는 지난 16일,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특색사업인 고구마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주민자치위원, 공덕면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참석하여 고구마 모종 심기, 흙덮기, 물주기 등을 서로 분담하여 시종 화가에 애한 분위기가 속에서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내기 작업으로 한창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바탕 한바탕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올해 수확한 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연말에 생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장, 지역발전 위해 분주

지역주요 현안사업 해결·국가예산 확보위해... 정부·국회 방문해 적극적 협력과 지원 요청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박 시장은 이산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면담하고 이어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된 '2021년 민생관련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김제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새만금 연

결도로 국도승격 반영,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측사 매입 등이다.

먼저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동서도로 개통('20.11.24)으로 차량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에서 김제 구간을 잇는 연결도로(지방도, 군도) 4차선 확장과 국도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김제시 최대 축산단지인 용지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축산오염원이 새만금호 수질 및 전복 혁신도시

악취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새만금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경제도약의 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김제시 발전을 앞당길 중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신미란 경제복지국장 투자유치 위한 현장방문

지평선산단 투자기업 방문·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 면담 등

김제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소동행보에 나서고 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은 지난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지평선산단 투자유치 기업인 대승정밀(주)과 (주)하늘을 방문하여 기업대표 등과의 간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사이전 및 추가투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6일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분부를 방문 관계자들을 면담한 가운데 '수출농기계 부품·품질도도화 생태계 구축사업'의 진행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지역내 투자여건 개선과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현장방문에서 기업관계자들은 지평선산단 투자경과를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김제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투자에 대하여 조기에 검토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신미란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투자기업들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미란 경제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을 시작으로 주요 수출기업과 특장차 제조기업 및 유관기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보다 나은 기업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내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사랑장학재단, 지역 학생 204명에 장학금 3억원 지급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에서는 16일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박준배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 및 학부모 43명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채 간소하게 진행됐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3월 말 공고, 4월 초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 심의위원회를 거쳐다. 그 결과, 금년도 선정된 장학생은 이·통장 자녀 장학생 19명, 특별 장학생(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자녀, 예·체·기능) 5명, 일반장학생 180명 등 총 204명이고, 지급되는 장학금은 총 3억 원이다.

장학재단은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100만원, 대학생의 경우 김제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연간 300~600만원을 4년 동안 지급하고, 재학생 및 김제지역 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연간

300만원을 당해연도만 지급한다.

또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경우 고등학생은 물론 올해부터 대학생까지 선발하여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2007년 8월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27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온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현재까지 2천여 명의 김제사랑장학생을 선발해 약 26억 6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작년에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장학혜택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와 완주노이복지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어르신 위한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완주 구이생활문화센터-완주노이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대표 김상곤)와 완주노이복지센터(대표 이경국)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구이생활문화센터와 완주노이복지센터는 최근 지역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발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상곤 완주문화원장, 소영례 구이생활문화센터장, 이경국 완주노이복지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가노이복지사업에 관한 서비스 ▲생활문화사업 연계 협력

증진 ▲협력기관 연계 통한 상호보완 및 우호증진 ▲지역사회문화예술증진 등을 약속했다.

김상곤 구이생활문화센터 대표와 이경국 완주노이복지센터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협력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부 문의사항은 구이생활문화센터(063-224-2207), 완주노이복지센터(063-261-4266)에 문의하면 된다. /원주=이중복 기자

## 완주군, 7500여개 사업체 경제총조사 실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경제총조사는 완주군 내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7558개소를 대상으로 한 국가 기본 통계조사다.

산업전반에 대한 고용·생산 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올해 실시하는 경제총조사 조사항목 중 공통항목에 운영장소와 특성항목에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여부, 배달(택배) 판매여부, 디지털 플랫폼 거래여부, 편의시설 개수 4개 항목이 추가돼 ▲공통 13개(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성 항목 24개(제고액, 연간 생산량, 사업체 건물 연면적, 일일 평균 영업시간 등)로 총 37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7월 9일까지 인터넷조사로 이번 조사를 위해 채용된 조사원

으로부터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경제총조사 누리집(<http://www.ecenss.go.kr>)으로 접속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면접조사 시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착용·일정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국가와 지역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며 각 사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